성겸과 정길의 따스한 날

함께하면 더 따뜻한 집

글·그림 올레길

김성겸은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감싸는 아침을 사랑했어요. 성겸은 창가에 서서 환한 빛을 느끼며 친구 배정길과 함께하는 매일의 소소한 행복을 찾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정길이 방에서 나왔어요.

배정길은 집안일에 서툴렀어요, 설거지 더미 앞에서 두려워했지요. 성겸은 다가가며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함께 하면 더 빨리 끝내, 정길아.'

성겸과 정길은 접시를 하나씩 닦기 시작했어요. 정길은 서툴렀어도 성겸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어요. 물은 살랑살랑 손끝을 적시며, 둘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어요.

정길이 접시를 떨어뜨려 소리가 탁! 났어요. 성겸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연습하면 돼.' 두 친구의 웃음이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정길의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두 친구는 나머지 설거지를 마쳤고, 한 걸음, 두 걸음, 방으로 가며 서로에게 미소를 보였어요.

정길은 집안일에 점점 익숙해졌고, 침대 정리도 능숙해졌지요.
성겸은 다음으로 가르쳐줄 계획을 세우며 두근거렸어요.

이번에는 식물을 돌보기로 했어요. 정길은 물을 주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작은 손으로 꽃잎을 사르르 어루만졌어요.

겨울이 지나고, 두 친구의 얼굴에 봄날의 신선한 바람이 닿았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따스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설거지를 잘한 날 이후로, 정길의 자신감은 날로 컸어요. 이제는 집안일에도 웃으며 맞이해요, 물건들도 그와 친한 친구 같아요.

성겸은 정길에게 말했어요, "같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정길아!" 정길도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랑살랑 따뜻한 기억들이 두 친구의 집에 남았어요.
집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작은 손길 하나, 큰 믿음 하나로 집은 따뜻해졌어요.
사랑은 가까이서 날마다 자랐어요, 햇살 속에서.

끝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별이 남길 바라요.

성겸과 정길의 따스한 날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